

광주 외국인 카드매출 21% ↑… 골목상권 확산은 ‘과제’

한국신용데이터, 해외카드 매출 트렌드 분석

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도시보다 증가 폭은 낮아 다양한 상권 소비 가능한 관광 편의·상품 확대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광주 지역 해외카드 매출이 최근 1년 새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과 제주 등 주요 관광거점보다 증가 폭이 낮은 데다 외국인 소비가 수도권과 일부 상위 매장에 집중되면서 관광객 증가를 지역 골목상권 전반의 매출 확대로 연결할 여건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해외카드 매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역 해외카드 매출은 직전 1년보다 21.4% 증가했다.

이는 경기 20.4%, 강원 17.4%, 전북 16.9%, 대구 15.9%, 세종 10.5%, 충남 8.7%, 경북 4.8%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부산과 제주 등 주요 관광도시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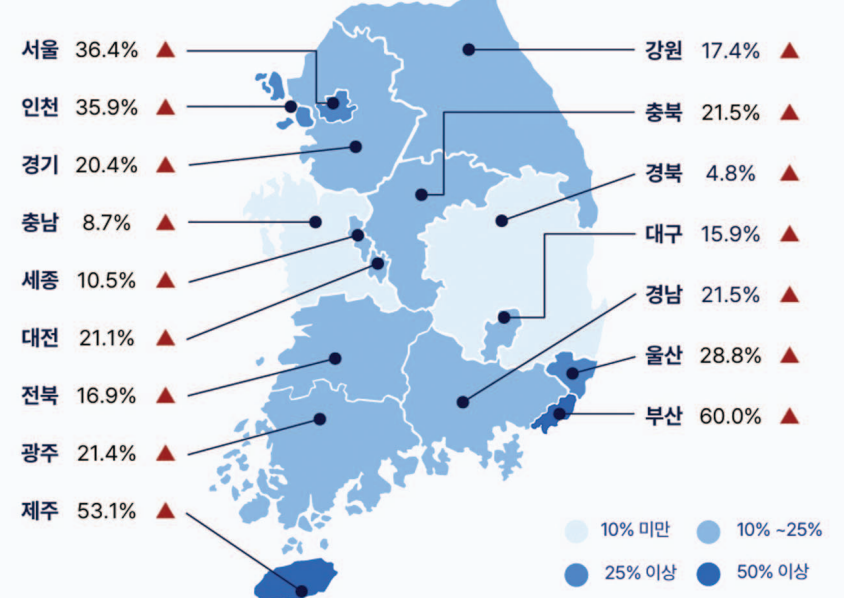
같은 기간 부산의 해외카드 매출은 60.0% 증가했고 제주도 53.1% 늘었다. 서울과 인천도 각각 36.4%, 35.9%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울산 역시 28.8%로 광주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소비는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가맹점의 해외카드 월매출 규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9.6배로 확대됐다. 전체 카드매출에서 해외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2%에서 1.2%로 6배 높아졌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관광시장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소비가 내수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해외카드 매출 전년 대비 성장률



월별 해외카드 매출은 외국인 방문 수요가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 고점을 형성했다. 방한 관광객 규모와 이동 시기에 따라 음식점과 유통·서비스업 등 지역 상권의 매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늘어난 외국인 소비가 지역과 점포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년간 전국 해외카드 매출의 65%는 서울에서 발생했다. 경기 11%, 부산 8%, 제주 5%가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의 비중만 76%에 달해 외국인 소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점포 간 매출 편차는 더욱 컸다. 해외카드 매출 상위 1% 가맹점이 전체 매출의 66.9%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까지 범위

를 넓히면 점유율은 90%에 달했다.

반면 나머지 90% 가맹점의 매출 기여도는 10%에 불과했다. 방한 관광시장 성장에 따른 소비 효과가 외국인에게 잘 알려진 일부 매장과 업종에 편중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외국인은 국내 소비 과정에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건당 결제액이 컸다.

전국 서비스업의 외국인 카드 결제 건당 금액은 평균 16만6000원으로 내국인 4만7000원의 약 3.5배에 달했다. 유통업은 외국인 3만2000원, 내국인 1만9000원으로 1.7배 차이가 났다. 외식업은 외국인 3만3000원, 내국인 2만8000원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건강·의료 분야의 외국인 소비가 두드러졌다. 건강·의료 분야의 외국인 객단가는 내국인의 약 8배였으며, 서비스업 해외카드 매출도 피부과가 40%, 성형외과가 14%를 차지해 미용·의료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됐다.

유통업에서는 패션·의류가 해외카드 매출의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편의점 13%, 안경 12%, 기타 전문유통 10%, 음식료품 9% 등이 뒤를 이었다.

외식업은 백반·한정식 19%, 고기·육류 17%, 양식 8%, 카페 7%, 해산물 5% 등 여러 업종으로 소비가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다.

일각에서는 광주 도심과 전남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상품을 확대하고 외국인 안 내와 해외카드 결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소비를 골목상권 전반으로 확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광주지역 해외카드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것은 외국인 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제는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이 지역에 오래 머물며 다양한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관광 편의와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캐시노트 연동 활성매장 가운데 해외카드 결제 이력이 있는 전국 32만8000개 가맹점의 결제액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이며, 최근 1년간 매출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직전 1년과 비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자동차 산업 이해… 청소년 미래 준비에 도움되기를”

기아 오토랜드광주, 청소년 꿈 설계 프로그램 진행 광주 초·중·고 학생 대상 직업체험·미래자동차 교육

기아 오토랜드광주(공장장 문제웅)는 최근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기아 오토랜드광주 견학, 미래자동차 체험, 직업체험 및 1:1 진로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소년 꿈 설계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2차수에 걸쳐 진행되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정된 지역 사회 청소년 6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꿈설계 프로그램은 1차수 초

등학교생, 2차수 중고등학생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차수별 청소년들은 기아 오토랜드광주 1공장 견학을 통해 실제 자동차 산업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미래자동차 체험에서는 전기차와 미래 자동차에 대해 배운 후 직접 조립하고 경주를 진행하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꿈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연영에 맞는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수 프로그램에서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고



전인환 기아 오토랜드광주 1공장장과 변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차수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진로 컨설턴트와 1대1 상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번 꿈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

견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홈플러스 778억원 지원… 협력업체 ‘숨통’

근로자 실업급여·대지연금 359억…용자도 419억 지원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와 용자 등 총 778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정부는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해 3월 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근로자들에게 지원된 실업급여와 대지연금은 총 2만4648건, 359억원에 달했다.

임금채불 생계비 용자와 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용자금도 9091건, 419억원이 지원되며 근로자 지원만 총 778억원 규모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

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277건, 116억원을 공급했다.

은행권에서도 지난 7일까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8167건, 5조4000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졌으며 신규 긴급자금 대출도 121건, 309억원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도 이뤄졌다.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신보의 위기대응 특례보증과 기보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을 통해 70건, 484억원이 지원됐다.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확보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체불임금 지급과 영업 준비 등에 활용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에 이어 13일부터 67개 점포에서 영업을 정식 재개했다.

윤용성 기자 yof1404@gwangnam.co.kr

초대석



서영구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영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정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송도
바람에 기대어 역사를 만든다

이달의 이슈



광주공항 활주로에 들어설 반도체 도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프로젝트’가 움직인다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
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
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진환·‘올타’·AI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